

부산 스포츠 특이점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31**
2022. 10

부산체육인

함께해서 행복한 자전거인(人)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

영광의 주역

‘최초’를 넘어 ‘정도(正道)’를 향한 소신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서경애 사무처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유쾌한 에너지로 필드와 트랙을 사로잡다!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발로 즐기는 스포츠!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부산 학교운동부 및 대학 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부산체육人

함께해서 행복한 자전거인(人)

-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



영광의 주역

‘최초’를 넘어 ‘정도(正道)’를 향한 소신

-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서경애 사무처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유쾌한 에너지로 필드와 트랙을 사로잡다!

-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발로 즐기는 스포츠!

-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부산 학교운동부 및 대학 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함께해서 행복한 자전거인(人)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

윤지용 회장

대회를 통해 자전거인들이 하나 되고,
뛰어난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유능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윤지용 회장의 오랜 취미는 골프다. 평균 80타를 칠 정도로 수준급의 골프 실력을 지닌 그에게 작년부터 중요한 취미가 생겼다. 바로 ‘자전거’다.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과 인연이 닿아 회장직을 맡게 된 윤지용 회장은 자전거연맹의 현 상황을 직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가 되자.’ 연맹 가족들이 자전거로 인해 행복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한 출발점은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내실부터 다지는 것.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자전거인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또한 자전거 코칭 및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이혜진 선수 외에도 유망주 선수들이 부산에 있는 만큼 이들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모색 중이다.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다. 실내, 산악, 전기 자전거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전거의 매력은 생활체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부산 내 자전거 동호인 수만 하더라도 2~3만 명이나 되죠. 비공식 인원까지 합치면 부산광역시 내에 30만 명의 동호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모으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동호인을 집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회 개최’이다. 내년 봄 자전거연맹회장배 유소년대회를 시작으로 성인부 등 각종 대회를 열고자 준비 중이다. 윤지용 회장은 대회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해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회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훗날 부산 30만 동호인들이 모여 자전거를 즐기리라 생각합니다. 대회를 통해 자전거인들이 하나 되고, 뛰어난 인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유능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부산광역시자전거연맹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원로체육인회
서경애 사무처장

‘최초’를 넘어 ‘정도(正道)’를 향한 소신

우리나라 여자 유도 최초 7단 취득, 최초의 여자 유도 심판... 서경애 원로는 하나도 얻기 힘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서경애 원로는 텔레비전으로 일본에서 열린 유도 대회를 보고는 순식간에 유도에 매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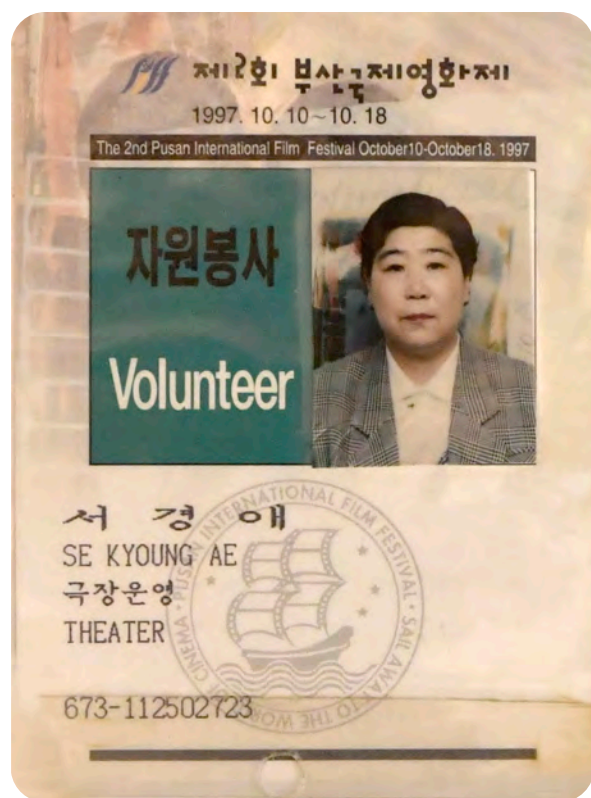
“100명, 200명이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고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저걸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유도의 ‘본(本)’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서경애 원로는 곧장 동네 유도장으로 갔다. 그런데 유도장에서 서경애 원로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여자 유도 공식 첫 시합이 1979년도에 생겼다고 하니 서경애 원로가 유도를 하려고 했을 땐 여자 유도 선수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유도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받았다.

그렇게 부산 지역 ‘여자 유도인 1호’가 된 그는 1976년 우리나라 여자 최초로 ‘유도 1급 심판 자격증’을 땀고, 우리나라 여자 최초 유도 6단(2004년)에 이어 7단(2014년)을 취득했다.

“6단은 ‘응당 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코치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남포동에서 서면까지 달리고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면서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7단을 땀습니다. 7단은 심사를 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는데, 합격 발표를 듣고 그때 처음 울었어요.”

서경애 원로는 2023년에 8단 취득을 목표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그가 지금까지 유도인으로서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또 하나의 ‘최초’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붙을 것이라 확신한다.



유쾌한 에너지로 필드와 트랙을 사로잡다!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지난 7월 열린 제60회 부산시 초·중학교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9개 세부 종목에 입상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한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1학년 학생들까지 종목을 선정해 출전한 만큼 모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은 의지가 넘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데, 이 분위기는 학생들 스스로 만들었다. 유쾌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육상을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 덕분에 지도자들이 힘을 얻는다고. 더불어 한참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도자들은 그들 각자의 말, 행동, 표현 방법에 맞춰 훈련과 피드백을 해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지도자와 선수 간의 긍정적인 교감은 부산대신중학교 육상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인 셈이다. 앞으로 육상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전도유망한 육상 선수로 성장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부산스포츠 히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바로 즐기는 스포츠!

서구체육회는 부산 최초의 시민운동장인 '구덕운동장'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프로축구 아이파크와 실업축구 부산교통공사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바로 즐기는 스포츠와 연관이 많은 서구. 서구체육회에서는 올해 축구·족구·풋살 등의 종목을 중심으로 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부산광역시서구족구협회에서는 'BALO 서구여자족구팀'을 창단하였으며, 7월 부산광역시서구축구협회에서는 '여성풋살팀'을 창단하였다. 서구체육회에서는 축구에 일가견 있는 조현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더불어 꿈나무들에게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서구체육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부산서구 i-LEAGUE'를 개최하고 있다. 서구 내의 많은 유소년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는 만큼 서구체육회에서는 대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남녀 최고 장사 가리며 대회 성료

지난 9월 3일(토) 부산광역시씨름체육관에서 16개 구·군 남녀선수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지역 최고의 장사를 가리는 2022 부산씨름왕선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6개 구·군 선수단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남자 3개 부(청년부·중년부·장년부), 여자 3개 부(60kg 이하·70kg 이하·80kg 이하)로 나눠 경기를 펼쳤으며, 단체 종합시상과 개인별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대회 개인 입상자에게는 전국대회인 2022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부산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가 씨름 동호인들의 화합과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민족씨름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여가 스포츠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통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2022 부산 학교운동부 및 대학체육동아리 용품 전달식

일시 : 2022. 09. 07.(수) 15:00

장소 : 부산광역시체육회관2층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 학교운동부 및 대학 체육동아리 운동용품 전달식 성료

초·중·고·대학·클럽 등 61개 팀, 총 3억 원 지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7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운동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초·중·고·대학·클럽 등 61개 팀을 선정해 총 3억 원 규모의 훈련 장비(용품)를 지원하였다.

우수 전문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 지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대학 체육동아리 용품 지원은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37개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교운동부의 훈련 여건 향상 및 생활체육 실천을 통해 체력증진과 스포츠 참여 활동이 확대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